



북극 얼음층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크게 얇아진 가운데 최근에는 그린란드에서 가장 큰 빙하 중 두 개가 갈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부 그린란드의 빙하. (광주일보 자료사진)

녹는 그린란드 '온난화 재앙'

급속히 녹아 내릴땐 해수면 최고 7m 상승... 전 세계 해안 잠길수도

마지막 빙하기에 북극 대륙 대부분을 덮고 있던 로르타이드 빙상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녹아 해수면 급상승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린란드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린란드 빙상이 급속히 녹아 내릴 경우 해수면이 최고 7m 상승, 전세계 해안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은 비극론자들이 설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겨져왔지만 최근 실제로 그린란드에서 가장 큰 빙하 중 두 개가 갈라졌고 그 원인은 온난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지 최신호에 실린 미국 과학자들의 연구는 로르타이드 빙상을 녹인 갑작스러운 온난화 현상이 급속히 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린란드 빙상의 안정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진은 로르타이드 빙상이 남긴 침적물을 분석한 결과 빙상 규모가 가장 컸던 2만 년 전엔 두께가 3km에 달했고 남쪽 경계가 현재의 뉴욕과 오하이오주까지 이르렀음을

밝혀냈다.

이후 지구 공전 궤도가 약간 바뀌면서 태양열 조사량이 늘어나자 두 차례 급격한 융해 현상이 일어났다. 약 9천년 전 일어난 첫 번째 빙상 융해 때 해수면은 연간 1.3cm씩 상승해 결과적으로 7m가 높아졌으며, 7천500년 전의 두 번째 융해 때는 연간 1cm씩, 총 5m가 상승했다가 6천500년 전 이란 추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에 비해 오늘날 해수면 상승 속도는 연간 3.3mm로 훨씬 느리며 그린란드 주변 바닷물이 저온이어서 북극 대륙과는 다른 환경이라는 점을 들어 로르타이드 빙상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장담하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1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급속기 말 온난화폭 1.8~4.0도 중 상한선은 로르타이드 빙상을 녹인 자연적인 온난화 폭과 일치할 뿐 아니라 그린란드 빙상은 로르타이드 빙상보다 훨씬 작아 온난화에 오래 버티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21세기 내 빙하 사라질 가능성 크다"

2000년 이후 녹는 속도 2배 증가
UNEP, 탄소 배출 감축 합의해야

세계 주요 지역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지는 현상과 비교하면 2000년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밝혔다.

UNEP는 이날 발표한 '글로벌 빙하의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그 같이 말하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각국 정부들이 심도 있고 단호한 탄소배출량 감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21세기 안에 많은 산맥들에서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UNEP는 그동안 빙하의 후퇴는 주기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보여왔으나, 북극과 중부 유럽, 남미 등지에서 관측된 최근의 빙하 후퇴는 예전과는 다른 비주기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에서 UNEP는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현 시나리오에 따르면, 100년의 시간을 단위로 할 때 빙하의 후퇴가 더 가속되지는 않아도 세계 각지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의 추세는 비주기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그것은 21세기에 많은 산맥들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빙하 후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05년 10년 동안 세계의 연평균 빙하 후퇴 규모는 50cm를 웃돌고 있다.



관광 활성화나 환경 보전이나

전남 유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재연

지리산, 유달산 등 전남지역 유명 산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에 개발론자와 환경단체 등 자연환경보존론자간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당위를 담은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저극적으로 나서면서 환경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연 보전보다는 개발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판단도 지자체의 움직임에 가속도를 부여하고 있다.

◇전남 지자체 케이블카 설치 박차
구례군은 지리산온천지구~삼성재 구간 2.9km에 걸쳐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케이블카 설치 이유로 국립공원을 관통하고 있는 삼성재 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도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대체교통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연간 80만대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대기 오염, 로드킬 및 동

물 이동경로 차단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재도로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목포시는 지난 1998년 추진하려다 중단했던 유달산~고하도간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 관광상품으로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최근 밝혔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유달산~고하도 케이블카는 유달산 유선각과 마당바위 중간 해발 170~180m의 8부 능선을 중심으로 기점은 고하도 해발 78m 지점에 설치된다. 길이는 육상 791m, 해상 1천102m 등 1천893m에 높이 60m로 1개의 지주대가 설치되고 약 1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목포시는 이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회를 오는 10월 개최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 노약자들에게 산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월출산(해발 809m) 정상까지 관광용 케이블카를 운행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영암군은 천황사 주차장에서 천황봉과 사자봉 사이 1.5km구간을 비롯한 4~5개 구간을 대상으로 코스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은 케이블카 설치시 200억~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환경오염사고 특별 감시

추석 기간동안 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가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와 연계해 오는 19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를 한다. 특히 상수원 수계와 공단주변, 하·폐수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도축업체 및 약성제수 배출업체 등이 주요 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로 취급된다.

추석 연휴, 연휴 전,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게 되며 오는 12일까지는 공장

"어린이 생태적 감수성 키워 드립니다"

녹색연합, 녹색 어린이 모집

광주전남녹색연합이 어린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하반기 녹색어린이를 모집한다.

녹색어린이는 초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며 참가신청은 오는 24일까지다.

모집 뒤 진행되는 탐방 행사에서는 섬진강 곡성 봉조리를 방문해 섬진자연학 습원 체험교실, 섬진강 따라 자전거 타기 등을 하게 된다.

10월25일에는 화순 도장리 지석강에서 마을신문 만들기 등을 11월29일에는 동북호 상수원을 찾아 '우리가 먹는 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라는 주제로 교류를 받게 된다.

참가비는 회원 5만원, 비회원은 6만원이다. 문의(062-233-6501)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법원경매전문
지시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상담)
☎ 062-226-0047 ~ 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 지역 | 소재지 | 대/건 | 감평가 | 최저가 |
|----|-----|----------|-----|------|
| 서울 | 신촌동 | 154/73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221/52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142/86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579/105 | 1층 | 883 |
| 서울 | 신촌동 | 182/74 | 1층 | 883 |
| 서울 | 신촌동 | 127/84 | 2층 | 883 |
| 서울 | 신촌동 | 107/64 | 2층 | 883 |
| 서울 | 신촌동 | 218/100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152/73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317/298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304/183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172/130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185/83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191/72 | 2층 | 883 |
| 서울 | 신촌동 | 198/136 | 2층 | 437 |
| 서울 | 신촌동 | 453/152 | 2층 | 625 |
| 서울 | 신촌동 | 512/213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388/186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1823/145 | 2층 | 738 |
| 서울 | 신촌동 | 178/102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364/132 | 2층 | 625 |
| 서울 | 신촌동 | 370/129 | 2층 | 938 |
| 서울 | 신촌동 | 231/110 | 2층 | 625 |
| 서울 | 신촌동 | 995/92 | 2층 | 538 |
| 서울 | 신촌동 | 180/118 | 2층 | 883 |
| 서울 | 신촌동 | 638/139 | 2층 | 397 |

부동산 권매거의 자부심!
법원경매 대중법률(주)
T. 062)229-9900
010-3619-1214

| 지역 | 소재지 | 대/건 | 감평가 | 최저가 |
|----|-----|----------|-----|------|
| 서울 | 신촌동 | 154/73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221/52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142/86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579/105 | 1층 | 883 |
| 서울 | 신촌동 | 182/74 | 1층 | 883 |
| 서울 | 신촌동 | 127/84 | 2층 | 883 |
| 서울 | 신촌동 | 107/64 | 2층 | 883 |
| 서울 | 신촌동 | 218/100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152/73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317/298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304/183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172/130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185/83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191/72 | 2층 | 883 |
| 서울 | 신촌동 | 198/136 | 2층 | 437 |
| 서울 | 신촌동 | 453/152 | 2층 | 625 |
| 서울 | 신촌동 | 512/213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388/186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1823/145 | 2층 | 738 |
| 서울 | 신촌동 | 178/102 | 2층 | 1943 |
| 서울 | 신촌동 | 364/132 | 2층 | 625 |
| 서울 | 신촌동 | 370/129 | 2층 | 938 |
| 서울 | 신촌동 | 231/110 | 2층 | 625 |
| 서울 | 신촌동 | 995/92 | 2층 | 538 |
| 서울 | 신촌동 | 180/118 | 2층 | 883 |
| 서울 | 신촌동 | 638/139 | 2층 | 397 |

수완 부동산 컨설팅
H·P : 010-5714-1114
(하남공단 3번로 / 수완지구 앞)

▶ **산월동 자연녹지**
- 전지공고 - 보존명목 시 약 6,000㎡
- 주유소, 화물차고지, 물류창고/분할가능

▶ **일곡지구 고급주택가 부지**
- 롯데A, 인신초고 서측 약 380㎡
- 고급주택 밀집지역 / 별도 토공상 불요

▶ **단독주택 매매**
- 운양동 중앙아파트 - 문화에세이화관사아파트
- 단지 약 200㎡ 2층주택 / 1층 주민집
2층별도 출입 / 2가구 임대중
정원수, 연료 관리상최적상 / 최신인테리어 개보수 완료

▶ **담양 관외지역 일야**
- 창평 23,000㎡ / 폭8m 진입로 확보
- 절경. 일곡에서 10분 거리
- 공장, 폐차장, 물류창고, 복지시설가능

▶ **원곡매도 (수익률 약 15%)**
- 도산역세권 / 원곡 17실 2층 1층 11실
- 매매가 4억 3천만원 / 실투자 2억 3천만원
- 보증금 2억, 월세 280만원

▶ **수완지구**
- 초대형학원 최고입지 확보
- 아파트 분양권 로얄투스 다수 확보
(한진, 코오롱, 우미, LG자이...)

▶ **공장 매매/임대**
- 하남, 소촌, 평등공단 매매 임대물건
수시 접수 & 처리중

▶ **기타**
- 수익성 좋은 10억 전후 건물구입/
매수자 대기중